

##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영향변인 규명 및 이성교제에 따른 차이 검증\*

김동심\*\* · 정수인\*\*\*

###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자, 자아인식으로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로 학습활동, 교우관계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잠재평균과 각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잠재평균 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6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2,0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둘째, 이성교제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성교제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에게서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 보다 강력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인식을 관리해 주고, 학교나 가정 차원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아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생활만족도, 이성교제

\* 이 논문은 제6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2016.11.18.)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신저자, [schwimmer@naver.com](mailto:schwimmer@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kyshl241@gmail.com](mailto:kyshl241@gmail.com)

## I. 서 론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특히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의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우울이나 신체건강 등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서정아, 김혜원, 2013). 또한 최근에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긍정심리학이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이현웅, 박윤정, 2011). 그러나 생활만족도와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2016년 조사 결과, OECD 22개국 중 가장 낮다(임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또한 낮은 생활만족도는 생활 부적응과 폭력적인 행동, 나아가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이현웅, 박윤정, 2011), 실제로 우리나라 10대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으며, 1990년의 자살률과 비교하여 2000년에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된다(이주연, 2016).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종단 분석이나 생태학적 관점의 분석 등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나,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는 지역이나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포괄적인 생활만족도와 구분하지 않고 학교생활만족도로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강성률, 박병선,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학생수를 고려하여 지역별 표본 수 할당하여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심리적, 물리적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으나(Meléndez, Tomás, Oliver & Navarro, 2009),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쉽게 변화가 불가능한 청소년의 부모 소득이나 직업, 직위 등과 같은 물리적 요인은 제외하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인식, 사회적 요인으로는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요인으로 선정한 자아인식 변인으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을, 사회적 요인으로 선정한 학교생활 변인으로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인식을 선정하였다.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대한 중요

성으로 청소년기에 자아인식 보다는 학업성취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강현권, 2015). 특히나 다양한 자아인식 변인 중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미애, 최명숙, 최성열, 2011)으로,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고, 인식,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다(Erikson, 1963). 청소년의 행동과 발달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개념(임호신, 정철영, 2010)이나, 한국인 75%가 자아정체감이 취약한 ‘정체성 폐쇄’ 상태이며, 낮은 자아정체감으로 인해 실직이나 이혼 등 주변상황이 변하면 유연한 대처가 불가하여 과도한 음주나 자살과 같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동수, 이유리, 이소영, 성태훈, 2007).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자아정체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Lerner & Spanier, 1980).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Haase, 2004),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에서 적응력이 높다. 또한 청소년 개인이 처한 물리적 환경은 개선시키기 어려우나 자아탄력성은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여 청소년기에 반드시 관심이 필요하다(김영민, 임영식, 2013).

사회적 요인으로 선정한 학교생활 변인으로는 일상생활만족도와 구분되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활동은 학습에 대한 신념, 평가, 행동 경향성으로,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이 주로 이루어지고, 특히 고등학교의 학업은 대학교 입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보통의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공부시간이 길면 학업성취도와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부시간이 긴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OECD, 2017),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학습활동과 관련되어 목표 달성 실패, 과제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경우,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는 긍정적 학습활동이 다수의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전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기에 교우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 중 생활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많고 그들과의 우정의 정도가 깊은 경우, 청소년은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이러한 지지가 학교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sh & Huebner, 2001). 반대로 청소년기에 친한 또래와의 관계인 교우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학교부적응, 학교중단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이다(송영명, 이현철,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에 따른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생활과 관련된 이성교제는 그간 학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에는 신체발육과 성적 발달의 가속화로 이르게 찾아오는 사춘기와 성적자기결정 등의 담론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은주, 2014). 초등학생의 60.8%(하수정, 2011), 중학생의 53.0%(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가 이성교제중이며, 근래에는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이성교제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정서적 변인에 대한 수준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에 따라 자아인식,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변인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성교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여 높은 생활만족도 제공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인식과 학교생활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자아인식으로 선정한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로 선정한 학습활동, 교우관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현림, 천미숙, 2003). 특히나 김선영(2004)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학업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는데,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사회관계 뿐 아니라, 학업적 능력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와 극복이 빠른 자아탄력성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력 또한 향상됨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확신을 통해 상황과 관계에서 탄력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교우관계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과의 관계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감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향성이 높아 친구들에게 인기 있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학교를 좋아한다(정수인, 오인수, 2014). 즉,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어려운 문제, 고통, 우울 등의 부정 정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고,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지적 효율성이 높고(Block & Kremen, 1996), 유능성과 영리함(Block & Block, 1980)을 가지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 능력을 잘 활용하여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원을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Compas, Hinden & Gerhard, 1995). 박원주와 이기학(2008)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교적응도와 학업성취에서 유의하게 적응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구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이 학교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Ash & Huebner, 2001).

## 2. 자아인식,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간의 관계

개인이 삶의 각 영역에서 질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에서의 질적인 안녕상태,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갖게 되는 만족이나 행복 등으로 정의된다(곽수란, 2007). 특히나 성인으로서의 이행 단계로써 자아인식 구성, 사회적 관계 확장, 장래 계획 등 사회, 심리적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생활만족은 개인 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며, 실태와 관련 영향 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자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번역의 차이로 ‘생활’ 과 ‘삶’ 이란 용어를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생활만족도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도 동일한 맥락에서 함께 살펴 보았다.

Suldo와 Huebner(2004)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는 환경, 가족, 사회 등 다양한 변인이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의 자아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홍연란, 2006), 자아탄력성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영민, 임형식, 2013), 교우관계 등의 인간관계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정연, 정현주, 2008)가 있으며, 활동성이 생활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지윤, 1998) 등이 다수 존재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와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생활만족도에는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 3. 청소년의 이성교제

청소년기는 자아형성을 통한 심리적 성장과 더불어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인 친구에게 의존하고, 실제로 이해와 지지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홍주영, 도현심, 2002). 이 같은 청소년기 또래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성 정체성이 모호한 아동기에 비해 이성 또래와의 접촉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한상철, 2000). 동시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13세를 경계로 신체적 성장과 함께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일기 시작하는데(곽금주, 2013), 이로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고(박용호, 2006), 교제를 시작하면 동성친구보다 이성친구에게 더욱 몰입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성교제에 따른 청소년기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일부 청소년 이성교제가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박용호(2006), 한만열(2003)의 연구가 있으나, 일부 지역에 제한된 연구이다. 또한 김원중(2004)의 연구에서 이성교제는 대체로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업성취와 연결해서는 이성교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 외에도 이성교제가 또래관계에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 안월분, 이재구, 김영희(2002)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정유진(2017)은 이성교제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변화와 개인,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3·5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성교제를 할 확률이 높았으며, 가구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학교 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고, 자아인식,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본 일반화된 결론이 입증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잠재평균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따른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생활만족도의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성교제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에서의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다집단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집단 분석은 맥락 간의 차이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일반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성교제에 따른 두 집단별 차이가 있다면 전략을 집단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아인식,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성교제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청소년의 자아인식, 학교생활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6차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조사시점인 2015년에는 중등교육의 마지막 시기이자 학업성취를 위해 가장 집중하는 고등학교 3학년인 2,009명이다(표 1 참조). 성별의 분포는 남자 1,015명(50.5%), 여자 994명(49.5%)이며,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1,383명(68.6%), 특성화고 371명(18.5%)순이며, 남녀공학 구분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1,053명(52.4%) 이 재학 중에 있었으며, 성별은 구분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956명(47.5%)이다.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1,570명(78.1%)이고, 이성교제 중인 학생은 439명(21.9%)이다. 지역분포는 경기 293명(14.6%), 서울 190명(9.5%), 경북 151명(7.5%)순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기준   | 명수    | 비율(%) | 구분 | 기준 | 명수  | 비율(%) |
|------------|------|-------|-------|----|----|-----|-------|
| 성별         | 남자   | 1,015 | 50.5  | 지역 | 서울 | 190 | 9.5   |
|            | 여자   | 994   | 49.5  |    | 부산 | 119 | 5.9   |
|            | 일반고  | 1,383 | 68.8  |    | 대구 | 138 | 6.9   |
| 고등학교<br>유형 | 자율고  | 182   | 9.1   |    | 인천 | 130 | 6.5   |
|            | 특목고  | 72    | 3.6   |    | 광주 | 75  | 3.7   |
|            | 특성화고 | 371   | 18.5  |    | 대전 | 92  | 4.6   |
|            | 기타   | 1     | .0    |    | 울산 | 100 | 5.0   |
|            | 남고   | 451   | 22.4  |    | 세종 | 3   | .1    |
| 남녀공학<br>구분 | 여고   | 505   | 25.1  |    | 경기 | 293 | 14.6  |
|            | 공학합반 | 426   | 21.2  |    | 강원 | 94  | 4.7   |
|            | 공학분반 | 627   | 31.2  |    | 충북 | 113 | 5.6   |
|            |      |       |       |    | 충남 | 84  | 4.2   |
| 이성교제<br>경험 | 유    | 439   | 21.9  |    | 전북 | 98  | 4.9   |
|            |      |       |       |    | 전남 | 89  | 4.4   |
|            | 무    | 1,570 | 78.1  |    | 경북 | 151 | 7.5   |
| 총 계        |      |       |       |    | 경남 | 128 | 6.4   |
|            |      | 2,009 | 100.0 |    | 제주 | 112 | 5.6   |

## 2. 연구 도구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연옥(200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8문항(예: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개별 차원, 타인과 관련된 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KMO값은 .70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839.672( $p = .00$ )로 나타났다.

다. 신뢰도 Cronbach의  $\alpha$ 는 .712이다.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14문항(예: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기통제, 회복탄력으로 구분하였으며, KMO값은 .89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7937.243( $p = .00$ )로 나타났다. Cronbach의  $\alpha$ 는 .849이다.

표 2

연구 도구

| 변인    | 도구출처                  | 하위변인 및 예시 문항                                         | 문항 수 | 신뢰도  |
|-------|-----------------------|------------------------------------------------------|------|------|
| 자아정체감 | 송연옥<br>(2008)         | 개별차원<br>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br>실행한다                     | 8    | .712 |
|       |                       | 사회차원<br>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br>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      |      |
| 자아탄력성 | 유성경,<br>심혜원<br>(2002) | 자기통제<br>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br>사람이다                    | 14   | .849 |
|       |                       | 회복탄력<br>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br>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br>잘 이겨 낸다 |      |      |
| 학습활동  | 민병수<br>(1991)         |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 5    | .798 |
| 교우관계  | 민병수<br>(1991)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5    | .685 |
| 생활만족도 | 김신영<br>외(2006)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3    | .816 |

학습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요인으로 판명되어 묶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KMO값은 .817,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746.586( $p = .00$ )로 나타났다. Cronbach의  $\alpha$ 는 .798이다.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의 척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단요인으로 판명되어 묶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KMO값은 .739,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504.176( $p = .00$ )로 나타났다. Cronbach의  $\alpha$ 는 .685이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신영 외(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요인으로 판명되어 묶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KMO값은 .672,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2594.823( $p = .00$ )로 나타났다. Cronbach의  $\alpha$ 는 .816이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잠재변인 중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가 단요인으로 판명되어, 측정모형에 과도한 비중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항을 임의로 묶은 평균값을 사용하는 묶음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Kishton & Widamn, 199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후, 구조모형을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구조모형 속의 모든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순서로 가정을 검증하였다. 두 집단 간의 잠재변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추정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은 그 집단과 참조집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된다. 또한 추정된 잠재평균의 상대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ohen의 효과크기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에 따른 인과관계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는 다집단 분석을 위해, 각각의 경로에 제약을 가하여 부합도 지수를 비교한 뒤, 경로계수의 차이 유무를 살펴보았다.

## IV. 연구 결과

## 1. 측정변수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표 3과 같이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1.82에서 최고 2.36,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42에서 최고 .67이었으며, 왜도는 절대값 최소 .00에서 최대 .43, 첨도는 절대값 최소 .18에서 최고 .87의 값을 보였다.

표 3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측정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개별차원  | -                |                  |                  |                  |                  |                  |                  |                  |                  |      |
| 사회차원  | .66 <sup>*</sup> | -                |                  |                  |                  |                  |                  |                  |                  |      |
| 자기통제  | .40 <sup>*</sup> | .31 <sup>*</sup> | -                |                  |                  |                  |                  |                  |                  |      |
| 회복탄력  | .48 <sup>*</sup> | .41 <sup>*</sup> | .77 <sup>*</sup> | -                |                  |                  |                  |                  |                  |      |
| 학습활동1 | .30 <sup>*</sup> | .23 <sup>*</sup> | .26 <sup>*</sup> | .31 <sup>*</sup> | -                |                  |                  |                  |                  |      |
| 학습활동2 | .24 <sup>*</sup> | .18 <sup>*</sup> | .20 <sup>*</sup> | .25 <sup>*</sup> | .66 <sup>*</sup> | -                |                  |                  |                  |      |
| 교우관계1 | .26 <sup>*</sup> | .20 <sup>*</sup> | .38 <sup>*</sup> | .44 <sup>*</sup> | .27 <sup>*</sup> | .27 <sup>*</sup> | -                |                  |                  |      |
| 교우관계2 | .29 <sup>*</sup> | .24 <sup>*</sup> | .33 <sup>*</sup> | .41 <sup>*</sup> | .31 <sup>*</sup> | .37 <sup>*</sup> | .52 <sup>*</sup> | -                |                  |      |
| 생활만족1 | .36 <sup>*</sup> | .29 <sup>*</sup> | .35 <sup>*</sup> | .45 <sup>*</sup> | .31 <sup>*</sup> | .19 <sup>*</sup> | .31 <sup>*</sup> | .28 <sup>*</sup> | -                |      |
| 생활만족2 | .33 <sup>*</sup> | .29 <sup>*</sup> | .31 <sup>*</sup> | .41 <sup>*</sup> | .30 <sup>*</sup> | .20 <sup>*</sup> | .28 <sup>*</sup> | .26 <sup>*</sup> | .76 <sup>*</sup> | -    |
| 평균    | 2.30             | 2.33             | 2.15             | 2.06             | 2.36             | 2.13             | 1.89             | 1.82             | 1.91             | 1.96 |
| 표준편차  | .46              | .43              | .42              | .43              | .63              | .63              | .49              | .44              | .64              | .67  |
| 왜도    | -.16             | -.25             | -.43             | -.36             | .23              | .39              | .07              | .00              | .37              | .36  |
| 첨도    | .33              | .21              | .40              | .26              | .41              | .61              | .68              | .87              | .51              | .18  |
| 최소값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대값   | 4.00             | 3.75             | 3.57             | 3.57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 $p < .05$ 

※ 1: 개별차원, 2: 사회차원, 3: 자기통제, 4: 회복탄력, 5: 학습활동1, 6: 학습활동2,  
7: 교우관계1, 8: 교우관계2, 9: 생활만족1, 10: 생활만족2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2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7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15),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변량 정규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2. 구조모형 분석

### 1) 측정모형

연구모형인 구조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1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은 좋은 부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72~.98에 걸쳐 있어 유의수준.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표 4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

|      | $\chi^2$ | $p$ | $df$ | TLI  | CFI  | RMSEA(90%)      |
|------|----------|-----|------|------|------|-----------------|
| 측정모형 | 134.02   | .00 | 25   | .978 | .988 | .047(.039~.055) |
| 구조모형 | 245.95   | .00 | 26   | .957 | .975 | .065(.058~.072) |
| 기준값  | -        |     |      | >.90 | >.90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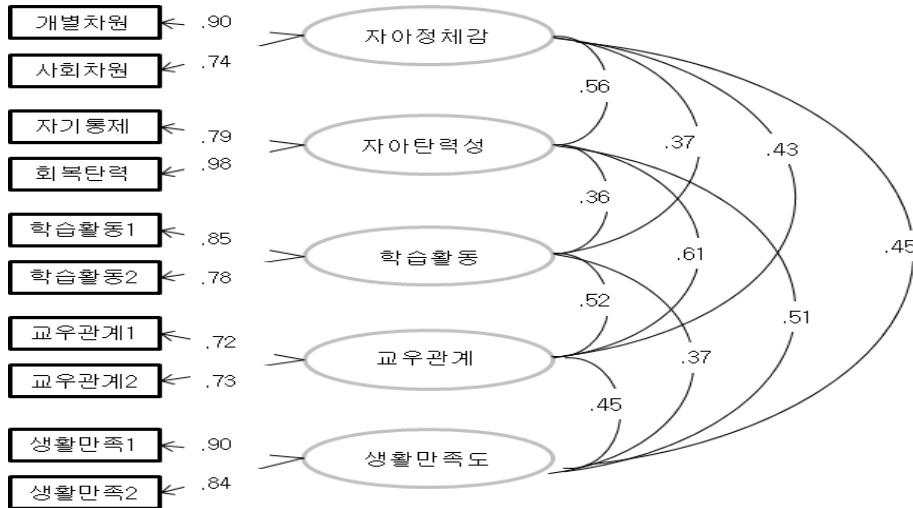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Hair et al., 2009),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하였다. 또한 잠재변수들간의 상관도 .80이하로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어 측정모형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2) 구조모형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TLI=.957$ ,  $CFI=.975$ ,  $RMSEA=.065(.058\sim.072)$ 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4 참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34(t=7.085, p<.05)$ ,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24(t=7.085, p<.05)$ 이다. 자아정체감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34(t=4.018, p<.05)$ , 자아탄력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541(t=14.799, p<.05)$ 이다. 자아정체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87(t=6.228, p<.05)$ , 자아탄력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65( $t=7.596$ ,  $p<.05$ ), 학습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52(t=6.304$ ,  $p<.05$ ), 교우관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147(t=4.156$ ,  $p<.05)$ 이다.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이 학습활동을 매개로( $z = 4.71$ ,  $p<.05$ ), 교우관계를 매개로( $z = 2.89$ ,  $p<.05$ )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정체감이 학습활동을 매개로( $z = 4.70$ ,  $p<.05$ ), 교우관계를 매개로( $z = 4.00$ ,  $p<.05$ )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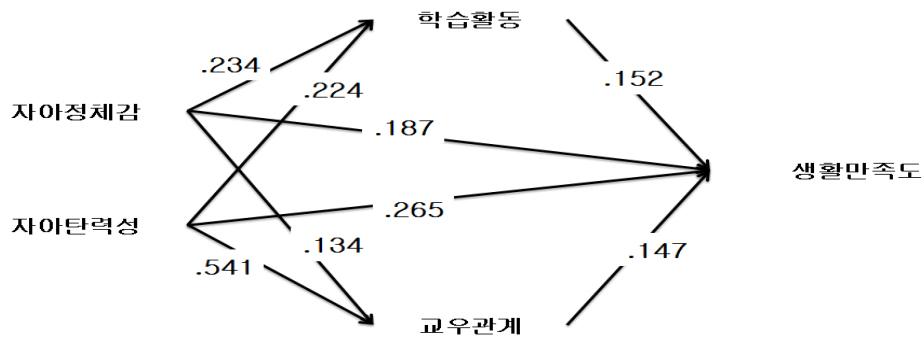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결과

표 5

직·간접효과 분해

| 관계변인 |         | 비표준화 계수(B) |       |       | 표준화 계수( $\beta$ ) |      |      |
|------|---------|------------|-------|-------|-------------------|------|------|
|      |         | 전체         | 직접    | 간접    | 전체                | 직접   | 간접   |
| 학습활동 | ← 자아정체감 | .323*      | .323* | .000  | .234              | .234 | .000 |
|      | ← 자아탄력성 | .238*      | .238* | .000  | .224              | .224 | .000 |
| 교우관계 | ← 자아정체감 | .129*      | .129* | .000  | .134              | .134 | .000 |
|      | ← 자아탄력성 | .404*      | .404* | .000  | .541              | .541 | .000 |
| 생활만족 | ← 자아정체감 | .430*      | .332* | .098* | .242              | .187 | .055 |
|      | ← 자아탄력성 | .520*      | .364* | .156* | .378              | .265 | .114 |
|      | ← 학습활동  | .197*      | .197* | .000  | .152              | .152 | .000 |
|      | ← 교우관계  | .270*      | .270* | .000  | .147              | .147 | .000 |

\* $p < .05$

### 3. 잠재평균 분석

이성교제에 따른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을 직접 비교하는 ANOVA에 비해 각 변인간의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잠재평균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 1) 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 검증이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측정모형이 같은지 평가하는 것이다. 형태동일성 검증결과,  $\chi^2 = 168.792(p < .05)$ , TLI = .976, CFI = .987, RMSEA = .034로 나타났다. 형태동일성의 부합도가 확인되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은 잠재변수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각 측정변수들이 각 집단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 간의 요인적재치가 동일한지 검증한다.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어야 요인적재치의 차이를 집단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절편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chi^2 = 172.219(p < .05)$ , TLI = .978, CFI = .987, RMSEA = .033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형태동일성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표본에 크기에 영향을 받는  $\chi^2$  검증 대신에 모형간의 부합도 차이값을 활용하였다(Chen, 2007). 모형부합도 차이값에 대한 지표로 CFI와 RMSEA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300명 이상의 표본에서는 CFI의 변화량이 .010이하, RMSEA의 변화량이 .015이하이면 동일성제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CFI의 차이값은 .000, RMSEA의 차이값은 .001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표 6

동일성 검증에 따른 부합도 지수

|                   | $\chi^2$ | $p$ | $df$ | TLI   | CFI   | RMSEA(90%)      | $\Delta$ CFI | $\Delta$ RMSEA |
|-------------------|----------|-----|------|-------|-------|-----------------|--------------|----------------|
| (모형 1)<br>형태동일성   | 168.79   | .00 | 50   | .976  | .987  | .034(.029~.040) |              |                |
| (모형 2)<br>측정동일성   | 172.21   | .00 | 55   | .978  | .987  | .033(.027~.038) | .000         | -.001          |
| (모형 3)<br>절편동일성   | 233.29   | .00 | 65   | .974  | .981  | .036(.031~.041) | -.006        | .003           |
| (모형 4)<br>요인분산동일성 | 248.03   | .00 | 70   | .974  | .980  | .036(.031~.040) | -.001        | .003           |
| 기준값               | -        |     |      | > .90 | > .90 | < .08           | ≤ .01        | ≤ .015         |

관찰한 값의 차이가 잠재변수의 집단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절편동일성은 잠재변수에서 값은 같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된 집단에 상관없이 같은 측정변수 값을 얻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측정변수의 절편이 집단 간에 동일한지 검증한다. 절편동일성 검증을 위해 측정동일성모형과 절편동일성모형간의 부합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CFI의 차이값은 .006, RMSEA의 차이값은 .003으로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

## 2) 잠재평균 비교

잠재평균 분석을 위한 동일성이 모두 만족되어 이성교제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잠재평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그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이성교제 학생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 잠재평균의 차이

| 잠재변인  | 이성교제 무 |       | 이성교제 유 |       | 전체<br>평균 | 표준<br>편차 | 효과크기<br>( <i>d</i> ) |
|-------|--------|-------|--------|-------|----------|----------|----------------------|
|       | 잠재평균   | 평균    | 잠재평균   | 평균    |          |          |                      |
| 자아정체감 | 0.00   | 2.342 | -.120* | 2.232 | 2.318    | .411     | .291                 |
| 자아탄력성 | 0.00   | 2.131 | -.121* | 2.023 | 2.107    | .405     | .298                 |
| 학습활동  | 0.00   | 2.237 | .064   | 2.303 | 2.252    | .578     | .110                 |
| 교우관계  | 0.00   | 1.864 | -.023  | 1.839 | 1.859    | .412     | .055                 |
| 생활만족도 | 0.00   | 1.943 | -.046  | 1.899 | 1.934    | .618     | .074                 |

\*  $p < .05$ 

이렇게 산출된 잠재변수의 평균차이가 어느 정도 큰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ohen의 효과크기(*d*)를 산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요인분산동일성은 절편동일성모형과 각 요인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간에 부합도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합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CFI의 차이값은 .001, RMSEA의 차이값은 .003으로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효과크기(*d*)는 공통 잠재평균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값이 .2이하면 작은 것, .5면 중간수준, .8이상이면 큰 것이다.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은 이성교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은 중간수준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 4. 다집단 분석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측정동일성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친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한 결과  $\chi^2 = 281.00(p < .05)$ 이고, TLI = .955, CFI = .974, RMSEA = .047로 만족할 만한 부합도를 보였다(표 8 참조). 이성교제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8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과 비교하였다.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제약 부합도는  $\chi^2 = 292.42(p < .05)$ 이고, TLI = .964, CFI = .974, RMSEA = .042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표 8  
동일성검증에 대한 부합도 지수

|            | $\chi^2$ | $p$ | $df$ | TLI  | CFI  | RMSEA(90%)      |
|------------|----------|-----|------|------|------|-----------------|
| 측정모형 동일성   | 281.00   | .00 | 52   | .955 | .974 | .047(.042~.052) |
| 집단 간 등가 제약 | 292.42   | .00 | 65   | .964 | .974 | .042(.037~.047) |
| 기준값        | -        |     |      | >.90 | >.90 | <.08            |

각 경로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위 그림 3<sup>1)</sup>과 같다.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집단 간 영향력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269(p < .05)$ 이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beta = .106(p < .05)$ 으로 나타났다.

1) 수치는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의 표준화된 계수이며, 이성교제하는 학생과 차이를 보이는 자아탄력성에서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만 괄호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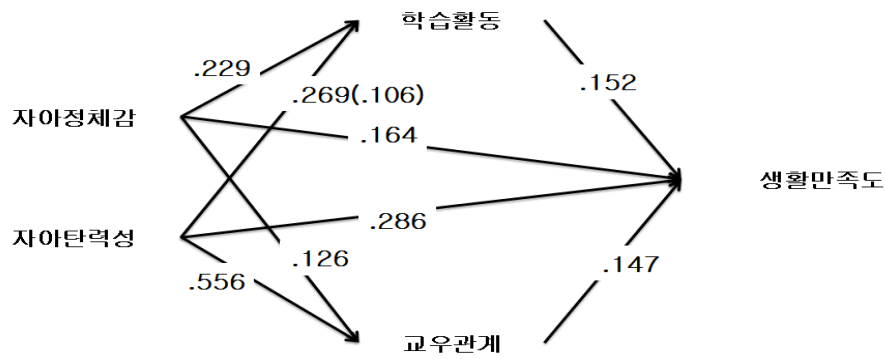


그림 3.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2,009명을 대상으로 자아인식인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인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일상생활인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성교제에 따른 청소년의 각 변인별 수준의 차이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영향력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에 대한 이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 교우관계에,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인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여야함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교교육을 통해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박아청, 200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해 정부는 입시와 성적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인성교육 강화정책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5). 이를 통하여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자아성찰과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발달단계별 맞춤형 인성교육과 체육·예술

교육 등을 학교현장에서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iebert(2009)가 제시한 ‘첫째,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둘째, 적극적으로 문제를 즉시 해결해라. 셋째, 열린 사고를 해라. 넷째, 육체적인 건강을 챙겨라. 다섯째, 웃음을 잃지 마라.’라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5가지 전략을 학교의 교사가 교과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인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학습활동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의 개별적인 학습유형 양식을 파악하여 각 학생별로 학습방법 및 학습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강인애, 정은실, 2010). 또한 교우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조직의 참여문화 프로그램(최미묘, 2014)이나 상담프로그램(박영희, 2014) 등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둘째,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가 사회적응을 위한 긍정적 관계를 만들고, 높은 자존감 만들어 낸다는 결과(Manning, Longmore, Copp & Giordano, 2014)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의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관련한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에 대한 연구(Korchmaros, Ybarra & Mitchell, 2015)로까지 확장,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로써, 본 연구 결과는 문화적 인식에 비교적 차이가 있는 우리 사회의 연구 환경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만 집단 간의 차이를 가졌다.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이성교제 경험보다는 청소년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만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히 이성교제

를 하지 않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은 불행한 상황을 가정하여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포착, 반박, 해석, 극복방안 마련 및 적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인 ‘효과적 논쟁 기술’을 익히는 것(Seligman, 1991)으로 자아탄력성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노영천, 유순화, 2008). 불행한 상황을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 효과적 논쟁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제시하고, 심리사회적 차원의 학교교육 전략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이제까지 이성교제 경험과 관련하여 각 변인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됨에 있어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이성교제에 관련된 실태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양상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종단연구가 진행된다면, 청소년의 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인식 차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시기별로, 학년별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일어나는 시기로, 이성교제에 따른 자아인식,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변인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와 변화양상을 살펴본다면 청소년에 대한 다각도적인 시각으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률, 박병선 (2016). 아동·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비교. **교정상담학연구**, 1(2), 5-25.
- 강인애, 정은실 (2010). 팀 구성 방식에 따른 학습활동 만족도, 질적 자료 분석에 의한 사례연구. **교육방법연구**, 22(3), 67-95.
- 강현권 (2015).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자아실현욕구가 학업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43, 7-30.
- 곽금주 (2013). **청소년의 이성교제 문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곽수란 (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1), 1-21.
- 교육부 (2015). **2015년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김선영 (200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민, 임형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원중 (2004). 남녀공학, 비공학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비교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3(3), 59-109.
- 김정연, 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지윤 (1998). **기혼여성의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영천, 유순화 (2008).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교사의 낙관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18(3), 139-157.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 (2004).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 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201-312.
- 박아청 (2008). **청소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희 (2014).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38, 7-32.
- 박용호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이성교제가 학업성취와 자아존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원주, 이기학 (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20(3), 675-695.
- 서정아, 김혜원 (2013).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연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명, 이현철 (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28(1), 91-112.
- 안월분, 이재구, 김영희 (2002).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 가정교육학회지**, 14(2), 53-66.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이동수, 이유리, 이소영, 성태훈 (2007).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미애, 최명숙, 최성열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 자아정체감, 심리적 독립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739-761.
- 이은주 (2014). 여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어머니의 태도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535-559.
- 이주연 (2016).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이현웅, 곽윤정 (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임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2016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임효신, 정철영 (201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4), 53-73.
- 전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8, 71-90.
- 정수인, 오인수 (2014).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內現的)자기애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2), 887-901.
- 정유진 (2017). 청소년의 이성교제 여부 변화와 관련 요인.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660-671.
- 최미묘 (2014). 학교조직의 참여문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동체 행복지수 높이기. **미래교육연구**, 4(3), 83-82.
- 하수정 (2011). 부산시 초등학교 5, 6학년의 이성교제 실태와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청소년의 사랑: 감춰진 10대의 이성교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만열 (2003). **이성교제 상태에 따른 청소년의 이성친구에 대한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상철 (2000). 청소년기 이성관계의 특징과 발달 유용성. **청소년행동연구**, 5, 1-17.
- 홍연란 (2006).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구조모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1), 102-111.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Ash, C., & Huebner, E. S. (2001). Environmental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test of cognitive media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3), 320-336.
- Block, J. H., & Block, J. (1980).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edited by W. Andrew Collins.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aase, J. E. (2004).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as a guide to interventions.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Nursing*, 21(5), 289-299.
- Hair J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 Tatham,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 Kishton, J. M., & Widam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orchmaros, J. D., Ybarra, M. L., & Mitchell, K. J. (2015). Adolescent online romantic relationship initiation: Differences by sexual and gender identification. *Journal of adolescence*, 40, 54-64.
- Lerner, R. M., & Spanier, G. B. (1980). *Adolescent development: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 Manning, W. D., Longmore, M. A., Copp, J., & Giordano, P. C. (2014). The complexities of adolescent dating and sexual relationships: Fluidity, meaning(s), and implications for young adults' well-being.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4(144), 53-69.
- Meléndez, J. C., Tomás, J. M., Oliver, A., & Navarro, E. (2009).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mensions explain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 structural model examination.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8(3), 291-295.
- OECD. (2017). *PISA 2015 Results-Students' Well-Being*. Paris: OECD.
- Seligman, M. E.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AA Knopf.
- Siebert, A. (2010). *The resiliency advantage: Master change, thrive under pressure, and bounce back from setbacks*. California: Berrett-Koehler Publishers.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165-195.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dating experience

Kim, Dongsim\* · Jeong, Suin\*\*

The purpose of study wa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ego-resilience, learning activities, peer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dating experienc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anel study on Korean adolescents; which was a large, population-based study conducted by the NYPI.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009 students(1,570 students with no dating experience, and 439 students with dating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go-identity and ego-resilience affected learning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ego-identity, ego-resilience, learning activities, and peer relationships affected life satisfaction. Third, according to latent means analysis, students with dating experience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in ego-identity and ego-resilience than those with no dating experience. Forth, according to our multi group analysis, the path difference between ego-resilience and learning activities was significant in both the no dating experience and dating experience groups. With these results in mind, this study suggests a number of management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 school life.

Key Words: ego-identity, ego-resilience, learning activities, peer relationships, life satisfaction, dating experience

투고일: 2017. 3. 8, 심사일: 2017. 5. 15, 심사완료일: 2017. 5. 29

---

\* Inha University, schwimmer@naver.com

\*\* Ewha Womans University, kyshl241@gmail.com